

# “재정 강화·민생 정책으로 목포 미래 100년 준비”

## 병오년 새해설계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말의 기상이 멈춤 없이 전진하듯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내일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상풍력·친환경 선박 산업 양 축

‘K-GIM 국가전략클러스터’ 속도

목포역 대개조·의대 유치 등 박차

니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는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고 민생을 한 층 더 세심히 살피는 동시에, 목포의 미래를 향한 준비를 멈추지 않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이 토대 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정책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

정책을 꼼꼼하게 챙길 방침이다.

목포의 미래 먹거리인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상풍력과 친환경 선박 산업을 양대 축으로 삼아 목포를 전남 서남권 산업을 이끄는 에너지 전환의 중심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AI와 디지털 기술을 미래 에너지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세계 1위 김 수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K-GIM 국가전략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목포만의 독보적인 자산인 문화·예술·바다·섬을 활용해 ‘머무르고 다시 찾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한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 공간 재편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청사진도 제시했다. 원도심은 문화·예술·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고, 임성지구와 서산·온금지구는 친환경 주거 기반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간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목포역을 서남권 교통의 중심이자 도시의 관문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남해안철도 고속화, 서해안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해 서남권 광역교통의 거점 도시로 도약을 꾀할 방침이다.

지역 숙원인 전남 국립과대학 설립을 적기에 추진해 서남권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 미래를 준비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원스톱 제공 등을 통해

‘목포형 통합돌봄’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민선 9기 출범을 대비한 중장기 발전 전략도 구체화한다. 목포의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큰 그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산업·경제·문화 등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해 ‘일 잘하는 행정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오늘의 선택과 준비가 목포의 미래 백 년을 좌우한다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마음으로, 목포의 더 빛나는 미래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본궤도

424억원 투입...2029년 개원 목표

연구시설·숙소·안전체험관 등 조성

함평군이 올해 대한민국 교통안전 교육의 핵심 요충지로 도약을 준비한다.

4일 함평군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사업이 2026년도 국회 본회의 예산에 최종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24억원을 들여 대동면 은교리 자연생태공원 일원 2만2천46㎡ 부지에 연면적 1만1천700㎡ 규모의 교육원을 건립한다.

〈조감도〉

교육원은 ▲연구시설 ▲강의실 ▲숙소 ▲안전체험관 등을 갖춘 최첨단 종합 시설로 조성된다.



그동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매년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직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자체 연수 시설이 없어 외

부 기관을 임차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함평군은 이러한 점을 공략해 교통 접근성과

자연·체험형 교육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내세워 지난 2023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비용편익분석(B/C)에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0을 넘기는 1.0391을 기록하며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교육원이 문을 열면 연간 1만3천610명의 교육생이 함평을 찾고, 그동안 실습 시설 부족으로 제한적이었던 경찰차·이륜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실습 교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은 이번 유치를 통해 전남·전북·충청·경남 등 교통안전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아우르는 ‘남부권 교통안전 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교육생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 등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교통안전교육원 유치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함평이 국가 안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라며 “지역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 무안군, 제설 작업 ‘구슬땀’

13개 노선 차량 13대 투입

무안군은 최근 “최근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주민 불편 해소와 군민 안전을 위해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4일 밝혔다.

〈사진〉

군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부서와 읍면 상황근무를 실시했고, 도로 13개 노선 180㎞에 대해 제설차량 13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일 김산 군수, 김병중 부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공직자들은 무안군청부터 무안을 중앙로 등 주요 시가지와 마을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김산 군수는 “대설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정식 개원...편의성 향상

개장 유골 안치 등 대상 확대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해 첫날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영광군은 4일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영광군 공설추모공원’이 지난 1일부터 정식 개원했

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해 10월23일부터 약 70일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전반의 세밀한 점검과 이용자 동선 확인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 안정적 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짧은 시범 운영 기간에도 봉안당 개인단 24위, 부부단 14위, 자연장 9위가 안치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정식 개원부터는 기존에 제한됐던 ‘개장(이장) 유골’의 안치와 안치까지 가능해져 이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안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화장증명서, 유골인도증명서(봉안유골), 개장신고증(분묘유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며 “공설추모공원이 고인에게는 평온한 쉼터를, 유족에게



는 진정한 위로를 주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완도군 ‘전 국민 마음 투자’ 2년 연속 최우수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호평

완도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평가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 질환 조기 발견을 돕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률 ▲제공 기관·인력 등록 ▲예산 집행률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완도군은 체계적인 사업 운영과 높은 주민 참여율, 안정적인 예

산 집행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그동안 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대상자에게 총 8회의 전문 심리 상담과 최대 6만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한광일 완도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수상은 군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



## 진도군, 道 청정전남 으뜸마을 평가 ‘우수상’

공동체 회복 사업비 2천만 확보

진도군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

〈사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생활 환경을 가꾸고,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와 지속가능성, 공동체 활동 실적 등을 중

합적으로 심사했다.

진도군은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우수 시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은 올해 129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단 운영, 찾아가는 현장 지원, 자체 교육 등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펼쳐왔다.

특히 의신면 초중마을과 지산면 내삼당마을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 주민들의 자신감과 실천 의지를 높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준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서로 화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강진군, 이동노동자 일터 개선 공모 선정

맞춤형 교육·건강검진·안전용품 등 지원

강진군이 고용노동부 ‘2026년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기존 사업의 연장 운영과 더불어 지역 노동복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요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 9월부터 버스터미널 2층 유휴공간에 ‘이동노동자 복합 쉼터’를 조성했다.

군은 쉼터 조성 추진과 동시에 맞춤형 특화 교육, 건강검진, 차량 및 원동기 정비,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의 호응을 얻었고 실질적인 편의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연장 선정으로 쉼터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수혜 범위와 서비스 질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비대면 예약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쉼터 관리 운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재선정은 강진군의 노동복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받았다는 뜻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이동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강진형 노동복지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